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장터 완판 '지역경제 활력'

8개 업체 매출 5700여만원
업체 직접 생산 쌀귀리 등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 한 편에 조성된 초록민음 직거래장터에 입점한 업체들이 직접 생산한 쌀귀리·표고 등 48개 품목이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이번 봄꽃축제 초록민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8개 입점업체들의 9일간의 매출은 5700여만원으로 지역 경제 활력에 보탬이 됐다는 평이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9일간의 봄꽃 향연을 뒤로 하고 지난 14일 막을 내린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이 이색적인 풍광으로 인기를 끌었다.

서부해당화와 절쪽이 활짝 핀 남미특사로 들어가는 초입에 마련된 강진군 초록민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주인공이다.

유럽풍의 실루엣으로 꾸민 초록민음 직거래장터는 벌써 화려하게 주위를 감

싼 철쭉을 배경으로 유럽 광장을 연상케 하는 장관을 펼쳐 보였다.

기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간단한, 어쩌면 조금 어설픈 부스 아래 상품만 진열하고 손님을 불러 모았다면 이번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 초록민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중앙집중형으로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었다.

청자골 강진표고농장에서 표고버섯을, ㈜도두맘은 작두콩을, 느린건조는 연잎과자, 다산정정미는 쌀과 잡곡류, 천지해는 김자반과 건어주, 개똥이네 농장은 쌀귀리, 벼섯향기농장은 목이버섯과 은이버섯, 산다움은 찹쌀떡과 쌀귀리빵으로 오가는 '신사 숙녀' 들을 불러 세웠다.

박진천 청자골 강진표고농장 대표는 "축제와 행사 때마다 초록민음 현장 판매를 하는데 이번 봄꽃축제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이 찾는 것 같다"면서 "몇 번 리필한 끝에 완판했다"고 말했다.



서부해당화 축제장 한 편에 조성된 초록민음 직거래 장터.

강진군 제공

송용기 ㈜도두맘 대표 역시 "늘 자리를 지키며 고객을 맞이하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더 좋은 제품을 통해 신뢰를 쌓고 강진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에서 직접 키

운 농특산물을 전국에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온라인 초록민음 사이트도 갈수록 많이 찾고 있다"며 "초록민음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2차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해남군, 24일까지

해남군이 2024년 2차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227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24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이다.

5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1일 4-8시간 근로를 수행하며 시급 9860원의 임금과 유급휴가 및 기타수당이 지급된다.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 사업은 9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 및 해남군 온라인 일자리지원센터, 군 소통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진도군, 공동체 의식 함양

진도군이 진도를 복상리 진도읍성과 군내면 만금리 울돌목 무궁화동산 일원에 주민·단체 참여숲을 조성한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주민·단체 참여숲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 또는 단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단체 참여숲을 생활권과 도심권 유휴지에 총 16개소 조성해 도시열섬·폭염 완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에 일조했다.

올해는 복상리 가로숲과 만금리 무궁화 마을숲을 주민·단체 참여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단체가 함께 수국, 무궁화,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마을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무안군, 어린이 구강 교실 운영

무안군이 오는 5월30일까지 어린이집 13개소 378명을 대상으로 '차카푸카! 어린이! 구강 교실'을 운영한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구강 교실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해 미취학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구강검진, 불소도포를 진행해 구강건강의 기초를 다지고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불소도포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 주고 세균의 효소 작용을 억제해 초기 충치 진행 억제, 충치 면역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치아의 소중함을 깨닫고 구강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목포시, 장관상 수상

목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에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포상은 전국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실현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참여·협력 활성화의 4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지방공기업들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목포시는 전남 최초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 및 체계화된 누수방지 업무를 통한 상수도 우수율 향상(89.79%) 등 지역에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표창에서 전남도 지자체 중 기관이 수상한 경우는 목포시가 유일하다.

이런 상수도 안정화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격년으로 이뤄지는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인 '나' 등급을 받아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 2021년에는 최상위등급인 '가' 등급받는 등 지속적으로 우수한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이번 수상에 대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지역 농수산물 활용 김밥 6종 개발

27일 김밥페스타서 공개

신안군은 2024 신안세계김밥페스타에서 선보일 신안김밥 6종을 개발하고 김밥연구회원 30여명 대상으로 농수산물 가공센터에서 기술 전수 교육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과 신안김밥연구회원들이 다양한 김밥을 만들어 보고 그 가운데 6종을 엄선하여 회원 간 같은 레시피를 공유하여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진행한 것.

이번에 개발한 6종의 김밥은 신안소금김밥+대파김치, 신안그냥김밥, 신안정원김밥, 신안양파김밥, 신안바다김밥, 신안홍어카츠김밥이다.

군의 우수 농수산물인 대파, 양파, 전복, 톳, 홍어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김밥페스타에서 관람객들에게 2000원, 4000원, 7000원의 종류별 판매로 착한 가격과 함께 골라 먹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2024 신안세계김밥페스타는 27~28일 2일간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에서 개최

되며 김밥경연대회인 신안 K-김밥월드컵, 조리 명장 푸드쇼, 체험 부스, 플리마켓, 신안김밥을 판매하는 배 터지는 김밥 파티존, 휴게공간인 김밥피크닉 가든, 어린이 놀이터, 전시 공간 겸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김효정 회장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신안김밥의 맛을 보여 드리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며 "신안세계김밥페스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군민 현장대화 운영

해남군은 지난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를 갖는다. 이번 현장대화는 읍·면민의 날 행사와 병행·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5월초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4월 중 읍면 현장대화를 갖고, 2023년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군민 보고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현장대화는 허심탄회하고 격의 없는 소통에 중점을 두어 군정보고 후 군수가 직접 주민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

로 지역 현안사항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한 발전 방향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15일에는 산이면에서 처음으로 현장대화가 열린 가운데 150여명의 면민들이 참여해 열린 분위기 속에서 군정 발전 방안과 산이면 현안 사업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읍면 현장대화 일정은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6일 북평면, 17일 옥천면·화산면, 18일 문내면, 23일 송지면, 24일 마산면·계곡면, 25일 화원면, 26일 황산

면, 29일 복일면·해남읍 5월 3일 현산면, 8일 삼산면 순으로 개최된다.

지난 1일 옥천, 마산면민의 날을 시작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도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지역발전과 이웃사랑으로 모범이 되어온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기념식, 주민 화합행사가 펼쳐진다.

명현관 군수는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각계 주민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남군정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군민 대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대화를 통해 군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정원해설사 기초과정 23명 배출
신안군, 정원 중심 관광 활성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원해설사 양성 교육이 새로운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9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정원해설사 양성교육기초과정 3기로 23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관람객들에게 관내 정원의 이야기를 담은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1004점 정원과 수목 자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품격 있는 정원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신안군의 사계절 꽃피는 정원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기초과정에서는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종원 작가의 지역정원의 이해와 해설 실제 우수사례와 현 부회장이인 유철상 작가의정원스토리로서나리오 작성하기 특강은 수료생들에게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정원 정책으로 정원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신안군이 선도해야 한다"며 "관광객들에게 품격 높은 정원해설로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